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Column

인천의 청년실업

Interview

'중소기업'은 청년의 현실적 가능성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IDI 소식



<성공적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

Zoom 人



치과 의사와 인천 양조장
1919년에 세워진 '아사히 양조장'은 인천의 최초 양조장(중구 선화동...

Zoom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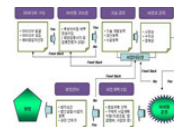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_ 나누어 같이 사는 지혜를 깨닫다
산자락에 있는 송현시장을 지나 목을 뒤로 꺾어야 위층이 보이는 고층 아...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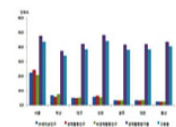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_중국 심양(沈陽)
흔히 하는 말로 '청년 백수 100만 시대'라는 답답한 현실이 지금 우리...

IDI 연구



인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정책 방향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와 ...

인천지표



인천광역시 고용현황
인천광역시 청년층 노동력 규모(15세 이상 인구)는 555천명으로 7대 ...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청년실업

인천의 청년실업

하석용 (사) 용익경제연구소 소장/경제학박사

인천의 각종 경제지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여왔다.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실업률은 항상 전국의 광역도시 중에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 최근에는 재정 압박으로 각종 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인천경제의 활로를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도시 전역에 만연하고 있다.

숫자가 표현하는 현상보다도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욱 각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경제 현장의 추세를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국세청의 조세통계 중에서 직·간접세의 과세표준 변화나 사업자 등록의 변동 상황들은 인천의 그러한 현상을 좀 더 실감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속에서 청년실업률(15세~29세 사이의 실업률)만이 별도의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역시 인천의 청년실업률은 비록 일시적인 변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실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에 따라, 심지어 조사통계요원들의 훈련 결과와 이를 집계 분석하는 정부의 의지까지도, 실업률이라는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솔직히 나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통계자료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의 선생으로서 느끼는 체감 현실은 수치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전체 실업률 중에서 굳이 청년 실업률을 구분하여 통계화하고 그의 악화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세대로서, 이들이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인 기초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라는 문제는 향후 이 나라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생의 이 시기에 형성되는 근로에 대한 가치기준과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하나의 국민경제라고 하는 집단적인 구조에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선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번영 이후세대들의 근로 기피 현상과 퇴폐적인 경향이 그들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에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교육과 현장의 미스매치(mismatch),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소위 마찰적 실업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히, 한 단위의 국민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기적 소득이 증가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사회 전반에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근로 기피 현상과 물신주의가 팽배하게 마련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에 회의를 갖게 되고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목표 없이 학교 더 다니기, 군대나 해외로 도피하기, 공직시험에 목숨걸기, 낮추어 가느니 차라리 놀겠다라는 무작정 버티기 따위의, 통계를 왜곡시키는

위장된 실업까지 양산된다. 무모한 투기나 불법적인 경제행위에 발을 들여 놓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게 이러한 현상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설픔게 창의성을 강조하고 창조적인 청년 창업을 부추기는 지도집단들의 무책임한 행태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영세한 신생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창업하였다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그 폐해의 범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경험의 축적과 단계적 성취라는 상식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인천의 청년실업도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 더 해서 서울과 유난히 가까운 인천의 청년들 사이에는 지방 콤플렉스가 작용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다른 광역도시들에 비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불안정성도 청년들의 합리적인 인생 설계를 방해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교육을 연결하려는 시도도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인생을 재생산하기 위한 꾸준한 교육의 지원도 필요하다. 구직자와 구인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취업지원 시스템도 좀 더 과학화할 필요가 있고, 물론 산업 현장을 선진화하고 근로제도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 현장은 좌우파 논쟁을 떠나서 좀 더 인격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을 인생 그 자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나의 노동은 나의 달고 쓴 모든 경험을 거쳐 비로소 나의 인생 그 자체가 된다는 신념을 우리의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를 위하여 인천시 같은 행정 단위나 인천의 지도집단들이 하여야 하는 일은 오직, 그들에게 허무한 이념과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실질적인 생산을 동반하는 산업을 육성하여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 애쓰고, 과학과 상식만을 믿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살아 갈 수 있다는 사회를 펼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회의 건강성은 언제나 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아마도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생각이다.

인천의 각종 경제지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여 왔다. 경제 성장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실업률은 항상 전국의 광역도시 중에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 최근에는 재정적 압박으로 각종 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인천경제의 활로를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도시 전역에 만연하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중소기업'은 청년의 현실적 가능성

'중소기업'은 청년의 현실적 가능성

2011년 연초를 뜨겁게 달구는 두 가지 경제 이슈라면 전세난과 청년실업을 들 수 있겠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전세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대학졸업생 중 취업을 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근거하여 이번 호 웹진은 인천의 청년일자리를 짚어보고자 한다. 인천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인천시청 일자리창출과 최중윤 과장과 정책의 최종수요자인 청년구직자를 각각 인터뷰를 하여 지상대담의 형식으로 꾸몄다.

Q 청년일자리의 의미는?



최중윤 과장(이하 시청)

청년일자리는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속한 가정과 미래 노후대책의 기초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체 사회와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지연 인천거주 대학생(이하 구직자)

인생에서 첫발자욱이다. 이전의 삶은 주어진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졸업을 하면 인생을 주체적이고 책임 있게 꾸려가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Q 청년일자리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청

청년자리 정책 중 뷰티산업을 강조하고 싶다. 뷰티산업은 화장품, 헤어, 피부, 건강 산업 등을 포함하는데 향후 4~5년여 동안 10만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는 청년, 특히 여성들에게 비전과 보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일자리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뷰티산업은 구조적 속성상 첨단기술과 전통산업이 융합되어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 유리하다. 조만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를 해 달라.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인천지역에서 20여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질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직자

미래지향적인 일자리에 대하여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사회적 기업도 그런 맥락에서 관심이 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이나 일 것이다. 청년이 가진 생각을 세상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정책과 사회적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Q 중소기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소기업에서 꿈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취업가능성이라는

시장

팩트에서 현실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가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직장을 통한 꿈과 비전을 창출하기 위하여 HI(Hope&Innovation)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구직자로 하여금 롤모델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꿈(Hope) 프로그램이며, 근로자와 고용주로 하여금 직장관련 학습을 하는 것이 혁신(Innovation)프로그램이다. 인천은 구직과 만족스런 직장이란 면에서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확신한다. 희망과 꿈을 펼치려는 청년구직자들은 인천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구직자

예비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절실할 듯하다. 중소기업은 사회적 평가는 물론이고 복리후생, 급여 등이 대기업에 비하여 형편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실상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연히 알던 것보다 중소기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취업설명회 등이 있지만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담당자들이 취업예비생들로 하여금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노력을 해야 할 듯하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시장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가족, 배우자 및 애인께 말씀드리고 싶다. 인천시는 구직자와 근로자 여러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사자 주변 분들이 이 점을 아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기대를 해 주시길 바란다.

구직자

결혼할 남자가 정규직이 아닌 대기업 직원일 경우와 중소기업에서 자리를 잡은 남자일 경우 나라면 후자를 택하겠지만 부모님은 대기를 선호 할 듯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변할 필요가 있다.



■ 대담·기록 : 조 승 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2011년 연초를 뜨겁게 달구는 두 가지 경제 이슈라면 전세난과 청년실업을 들 수 있겠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전세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 졸업생 중 취업을 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근거하여 이번 호 웹진은 인천의 청년일자리를 짚어보고자 한다. 인천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인천시청 일자리창출과 최중윤 과장과 정책의 최종수요자인 청년구직자를 각각 인터뷰를 하여 지상대담의 형식으로 꾸몄다.

<성공적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토론회> 개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 <성공적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토론회> 개최

인천시,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방향 설정 위해 관련 전문가·시민기업 의견 수렴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의 일환으로 시민·기업 등에 추진계획을 널리 알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종합(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난 25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는 지식경제부, 산업연구원, 인천지식재산센터 등의 관련 전문가 3명이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추진사례, 인천지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은 송도테크노파크 이윤 원장의 사회로 대학교수, 시의원, 산업단지공단 임원, 인천광수도추진본부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 혁신역량과 입지경쟁력 강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인천지역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종합(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우리 연구원, 조직개편 마무리 부서장 임명장 수여식

우리 연구원은 지난 3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인사를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정책연구실장에 허동훈 연구위원 ▲정책연구실 도시경영연구부장에 이용식 선임연구위원 ▲정책연구실 도시기반연구부장에 김용하 선임연구위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또 인천시 공무원이 파견될 예정인 기획본부장에는 책임자 임용 전까지 전 기획조정실장인 최원구 연구위원이 맡기로 했다. 수여식 후에 김민배 원장은 '어려운 때에 희생과 노력까지 수반해야 하는 자리이다. 앞으로 인력확충에 따른 공간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이전 문제 등을 본격 논의할 것이니 같이 고민하고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구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경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기이사회 의결로 산설된 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도 이날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위원회에는 6명의 외부전문가를 대거 위촉했으며, 이들은 향후 인발연 중 장기인력확충계획을 비롯해 임용승진·징계·해임·면직 등을 심의하게 된다.



■ 우리 연구원, 시민·학술단체 간담회 열어

지역사회와의 직접 소통으로 시장현안 진단 및 해결방향 모색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9일, 기획본부 주관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시장현안 공모를 위한 시민단체 및 학술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장현안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민사회단체 운영진 및 지역의 학술단체 대표자 등 1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년간 논의만 거듭하는 미술관과 박물관, 아시안 게임개최를 둘러싼 재정과 사후관리, 조력발전과 갯벌의 국립공원화' 등 20여 건의 의미 있는 연구주제들이 제안되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김민배 원장은 제안된 연구주제들은 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채택하여 수행하고, 연구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제안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협동연구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연구원이 연구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폐쇄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수행이 미흡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주제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의미있는 첫 행보가 되었다.

■ 우리 연구원, 부평구 방문에 시장현안 협의

'정책수요 직접 청취하고, 연구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 목적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군구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아젠다를 발굴코자 지난 10일, 기획본부 주관으로 '부평구와 함께 하는 시장현안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측 기관장 주재 하에 관련 공무원 및 연구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역현안과



시민생활에 밀착된 연구수요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평구의 지역현안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라본 재정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부평 상권 활성화 종합대책, 굴포천 복개에 따른 활용방안 등 10여 건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배 원장은 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연구사업으로 채택 또는 정책자문 활동을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연구원이 군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단체장을 초청해 전직원 대상의 군구별 현안 파악과 이해에 초점을 둔 강연을 한 반면, 올해부터는 관련 연구자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를 차례로 방문하여 정책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연구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우리 연구원, 여성계·산업계와도 간담회

여성계 인천시 여성관련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체계 구축 등 의견 제시
산업계 기업체의 탈인천현상 대책마련 부심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16일, 오후 1시, 4시에 지역 여성단체 및 산업단지 대표들과 차례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시정현안과 연구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자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

먼저,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이정희 회장 등을 비롯한 6명의 여성계 인사가 초청된 여성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는 인천형 노인복지사업, 사회안전망시스템 재점검, 생애주기별 여성정책 개발, 인천시 여성관련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관련해서, 정책개발과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인천서부산업단지 강창규 이사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용역을 완화, 행정구역 조정, 일자리 교육과 R&D 및 S/W 동시 지원, 주변 국가산업단지(부평/주안)를 포괄하는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업체의 탈인천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민배 원장은 '지금까지 인천이 주거문제에 비해 기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민선5기 시장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구도심 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명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적시에 실현가능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의 일환으로 시민·기업 등에 추진계획을 널리 알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종합(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난 25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치과의사와 인천 양조장

1919년에 세워진 '아사히 양조장'은 인천의 최초 양조장(중구 선화동 소재)이라는 것이 안전한 기록이었지만, 김남순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조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옛 아사히양조장의 현재 모습(신성희, 2009)

이름에서 보듯이 아사히 양조장은 일본사람이 술을 제조한 곳이고, 인천사람이 최초로 술을 빚어냈다고 알려진 곳은 '인천양조장'이라는 곳이다. 인천양조장은 1926년에 최병두가 설립한 공장으로 70여년간 소성주를 빚어왔다. 1996년 술맛을 좌우하는 이 일대의 지하수의 수질 저하를 이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기록에서는 치과의사였던 임영균(최병두의 사위로 알려진)이 최초로 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병두가 아닌 임영균에 와서 양조장이름으로 법인 등록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경인일보 특별취재편, <인천인물100인>). 배다리 시절의 인천양조장은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20~30명에 이르는 대규모 생산체로 기억되고 있다.



지금은 창작공간으로 쓰이는 옛 인천양조장의 모습

현재 부평으로 이전하였으며 남아있는 양조장 건물은 지역 미술단체 '스페이스빔(SpaceBeam)'이 임대하여 미술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래부터는 경인일보 창간 47주년 기획으로 특별취재된 <격동한세기 인천100인>에서 '임영균'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아프리에 독자들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소개해본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천의 인물사에 대해 소상히 취재해주신 경인일보 취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양조장 건물 바로 옆에는 80년 된 한옥이 한 채 있다.

인천 최초로 치과의원을 낸 임영균(林榮均:1904~1966)의 집이다.

지금도 그의 며느리 주현숙(72)씨와 손자 상호(50)씨 가족이 살고 있다.

집이 양조장과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임영균이 양조장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임영균이 양조장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조장 집 무남독녀를 부인으로 맞았기 때문이다. 그의 부인 최정순 여사는 지난 해 세상을 떠났다.

동덕여대의 전신인 동덕고녀를 다니다 임영균 선생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고 한다.

최정순 여사의 집안이 양조장을 했다고 한다.

손자 상호씨는 "양조장 이름을 인천양조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양조장이 인천에서 가장 먼저 법인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지금은 부평으로 터를 옮긴 배다리 인천양조장의 규모는 무척이나 컸다고 한다.

직원만도 20~30명이나 될 정도였다는 것이다. 며느리 주현숙씨는

"아버님은 영의만 양조장 대표로 돼 있었지 양조장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조장 일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도

임영균의 이력은 참으로 다양하다. 치과의사이면서 양조장 사장에 그친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인이었고, 언론인이었다. 또 로타리클럽 회장을 맡기도 했다.

가족들이 전하는 임영균 선생의 이력은 간단하다. 영화학교를 졸업하던 1915년에 잠시 취업했다가 1917년

서울 YWCA중학에 입학했고, 3·1운동 때 투옥됐다. 1922년에 중학을 졸업하고 경성치견에 입학했다.

1926년에 치견을 졸업하고, 그 해 서울대학병원에 취직했다. 이듬해 인천에서 '임치과'란 이름의 첫

치과병원을 개원했다. 그리고는 1966년 비교적 젊은 나이인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물론 경기도 치과협회 회장, 인천 로타리클럽 회장, 경기매일신문사 설립(1956~1957) 등의

사회활동경력도 있다. 임치과 개원 이후의 상세한 활동 내역이 없는 것이다.

임영균은 치과의사들 사이에선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꼽히는 게 분명할 만큼 활동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과 함께한 임영균 선생

2002년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을 맡았던
김성우씨는 한 기고에서 '회보가 창간될
초창기만 해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였고, 도회나 회원들도
다양한 회무를 수행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초대 회장인 인천 출신
임영균 회장은 평소 도회 소식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A4 4면의
경기도치과의사회보를 최초로 발간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회보 내용과 편집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임영균 선생은 어디를 가나 소식지 등 '언론'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임영균의 어린 시절 이름은 갑득이었다고 한다.
아들이 없는 큰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옮기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그의 큰 아들은 임명진(70) 전 대사다.

이러한 인천양조장이 있는 등구 창영등은 요즘 '배다리'로 불리우는 지역에 포함되는
곳으로 개항기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기까지 인천사람들, 서민의 생활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다. 가령 인천의 성남공장과 인천양조장과 같은 공장들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현책방거리, 문구거리, 한복길 거리 등이 남아있어 60-70년대를 회고할
수 있는 노스텔지어를 자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등
근대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 문화재들도 배다리 지역에 남아있다.

1919년에 세워진 '아사히 양조장'은 인천의 최초 양조장(종구 선화동 소재)이라는 것이
안전한 기록이겠지만, 김남순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조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
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아사히 양조장은 일본사람이 술을 제조한 곳이고, 인천사람이
최초로 술을 빚어냈다고 알려진 곳은 '인천양조장'이라는 곳이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_ 나누어 같이 사는 지혜를 깨닫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수도국산 달 동네 박물관

나누어 같이 사는 지혜를 깨닫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에는 창공을 향하는 달동네 사람들의 염원이 있다



요즘 살기가 어렵신지요?

대통령까지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해버린 기름값, 장바구니, 사교육비. 언제나 이런 걱정 안할 수 있을까요.

경제를 살려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는 경제를 일부러 죽였던가요?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부질없고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이 되어 버리는 요즘입니다.

상전벽해 수도국산 달동네를 오르며

그런 마음으로 수도국산을 올랐습니다. 산자락에 있는 송현시장을 지나 목을 뒤로 꺾어야 위층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 군락을 치켜보며 달동네박물관을 찾았지요. 불과 10여 년 전에는 그곳에 다다다 달동네가 있었다는데..... 문득 젊은 시절 제가 머물던 서울 사당동 산자락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지금도 고층아파트 단지가 되었지요. 십년 만에 강산이 변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한국사회인 듯합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 하긴 변하는 것으로 따지면 사람 마음, 세상인심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까하지만요.

산꼭대기라 그런지 바람이 차더군요. 하여 옷깃을 여미었는데, 보드랍고 포근한 봄기운이 목언저리에 맴돌이를 했어요. 100년 만의 추위 끝에, 아랫녘 양지가 아닌 찬바람이 부는 이런 곳에서 첫봄을 맞이할 줄이야. 수도국산 정상에 있는 송현동근린공원에 흰색의 배 모양을 한 것이 박물관이지요. 뱃머리는 배다리를 향하고 있지요. 예전에 배가 거기까지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원래 달동네는 높은 산자락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는 의미인데, 그곳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월세 방이 많아 달[月]동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개항기 이후 일본인들이 중구 전동 지역에 살게 되자 그곳에 살던 조선인들이 이곳으로 밀려오게 되면서 동네가 만들어졌고, 1960~70년대에는 일자릴 찾아 지방에서 모려든 사람들로 5만여 평 면적에 3천여 가구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셈이죠.

쪽방사절의 정_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힘과 행복의 원천



두 평짜리 쪽방, 그러나 22평의 행복

박물관은 그 지역에 있던 달동네가 1999년 철거되면서 일부를 이전한 것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중심으로 꾸려놓았지요. 박정양씨의 대지이발관, 박길주씨의 은을숨틀집, 가정집, 청산학원, 송림상회, 유완선씨의 연탄가게 등등 공중변소까지 있습니다. 함석판, 슬레이트 지붕, 솜틀 등 대부분이 실제 달동네에 있었던 것이지요. '부지런히 일하고 더불어 살아온 달동네 이웃의 미덕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라고 믿었던' 달동네 사람들의 뜻을 박물관으로 살려낸 것이죠.

가정집은 방이 좁고 천장이 낮습니다. 좁은 공간을 아껴야 하는 달동네의 사정 때문이었겠죠. 설명에 따르면 주택 대지의 최소면적이 90㎡는 되어야 하는 것이 당시 규정이었다고 하는데 81%가 최소규정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이 작을 수밖에요. 만석동 팽이부리마을처럼 골목도 좁았겠죠.

그래도 그 당시 달동네의 행복지수는, 값나가고 넓은 부촌과 비교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박물관 벽에 새겨진 원주민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때는 인정이 있었지. 우리 아이, 남의 아이 따로 없이 다 한가족이었거든”_허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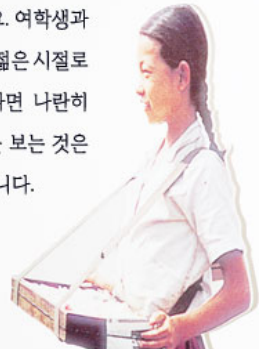
“나에게 수도국산 달동네는 부끄럽거나 슬프거나 아픈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힘이지요”_곽현숙

물질적으로 힘들지만 정(情)이 있어서였겠죠.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겨낼 힘은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요. 돈을 벌어서 해결하려는 것이 또 다른 경쟁과 비교를 낳는 법. 어려울수록 나눔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게 됩니다. 작은 정이 모여 새로운 힘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상생이요 사회적 시너지효과,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

인생의 동반자_그 길에서 함께하길

살아가는 힘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교복입어보기 체험이 있지요. 여학생과 남학생 교복과 교련복이 있습니다. 모자도 있고 가방도 있지요. 3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가 그 때의 마음가짐을 추슬러 보는 것은 어떤지요. 가시버시라면 나란히 교복을 입은 다음, 사춘기 시절에 만났어도 어울렸을 한 쌍인지 거울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복을 입고 자녀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맛도 좋을 듯합니다.

이곳은 여느 박물관에 비하여 훨씬 꼼꼼하게 손과 정성이 깃든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관람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씨가 곳곳에서



▲자판을 메고 있는, 지금은 우리들의 할머니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철수네 집이다, 박물관의 벽화로 다시 살아난 그때 그 풍경

묻어나고 있지요. 기념 스탬프도 찍고 그 당시 기념품을 파는 가게도 둘러보시죠.

당시 전 국민 엔터테인먼트였던 레슬링 경기도 흑백텔레비전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만화책도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주는 하얀 돌사탕을 곁들이면 깔끔한 시간여행이 되겠네요.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핵발전소 피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결국은 자연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현재가 있기에 과거와 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가족, 주변이 고마운 것이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올라온 수도국산, 내려갈 때는 봄의 길입니다.

글 조승현 연구위원 사진 석중수 연구위원



◀수구초심이랄까, 여전히 그 거리에는 정이 넘친다



만석동 역사 담긴 부둣가 명물, '쭈꾸미 볶음'

6년 전, 화수부둣가의 외관도 허름하고, 실내도 어둡했던, 심지어 '간판이 있었는가?' 기억마저 가물가물한 쭈꾸미*집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사전상 표준어와 표준발음은 '주꾸미'가 맞지만/된소리로 소리내는 경향에 따라 '쭈꾸미'로 적기도 한다니까/일단 '쭈꾸미'가 맞는 표현인 것만 알아두고/정감있게(?) '쭈꾸미'로 쓰겠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께 여쭙보니 이미 3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신다. 추억이 되어버린 쭈꾸미집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복항에 소재한 두산인프라코어 직원의 추천을 받아 만석부두의 '우진쭈꾸미'를 찾았다.



'우진쭈꾸미'는 같은 자리에서 28년째 운영하고 있는, 만석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며, 처음에는 된장찌개를 주로 파는 백반집으로 출발해서 우진갈비로,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쭈꾸미를 팔고 있다고 했다. 작은 식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고, 매콤한 양념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운 좋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네 가정집 같은 밑반찬들과 된장찌개가 나오고, 쭈꾸미 볶음이 불판에 올려졌다. 먹기 좋은 크기의 싱싱한 쭈꾸미와 향긋한 미나리, 양파와 피망까지, 색깔 고운 고춧가루 옷을 입고, 자글자글 익어갈수록 그 색은 더욱 붉어졌다. 적당히 익었을 무렵, 쭈꾸미와 각종 야채를 집어서 입에 넣어본다. 미나리의 향과 쭈꾸미의 아들아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졌다. 자극적이지 않은 적당한 매운 맛이 피로를 풀어줄 듯, 활기를 불어넣는 기분이다. 이 식당의 두 번째 인기

메뉴는 제육볶음인데, 쭈꾸미와 같이 섞어서 볶아 먹으면 별미라기에, 도전해보았다. 이 집 주인이 예전에 고깃집을 한 경력 덕분인지, 제육볶음이 누린내도 전혀 없고, 육질이 연하며, 적당한 두께에 쓸데없이 비계가 많지도 않아서 쭈꾸미와 제육볶음을 상추에 싸먹으면, 그 맛 또한 조화롭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념에 김가루 뿌린 볶음밥까지 먹고 나면, 어느새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있다. 오이지무침이며, 콩치조림 등 밑반찬도 엄마손맛 그대로이고, 앞서 말했듯 이 식당의 출발이 된 구수한 된장찌개 역시 시골 된장 맛이다. 소박하고 정감있는 음식과 착한 가격 (쭈꾸미, 제육볶음 각 7,000원)이 더욱 매력적인 '우진쭈꾸미'. 특히,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제철 쭈꾸미를 맛볼 수 있다. 봄의 길목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소설 <팽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지인 만석부두를 포함한 만석동 일대를 조용히 걸으며, 그 시절을 그려보자. 그리고,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주소: 인천시 동구 만석동 2번지/전화번호: 032-765-0011

글 장순지 사진 석중수 연구위원

산자락에 있는 송현시장을 지나 목을 뒤로 꺾어야 위층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 군락을 지켜보며 달동네박물관을 찾았지요. 불과 10여 년 전에는 그곳에 다닥다닥 달동네가 있었다는데..... 문득 젊은 시절 제가 머물던 서울 사당동 산자락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도 지금은 고층아파트 단지가 되었지요. 십년 만에 강산이 변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단면입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 하긴 변하는 것으로 따지면 사람 마음, 세상 인심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까하지만요.

'일자리 창출' - 중국 심양(沈陽)

도시기반연구부 박봉철 초빙연구원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일자리 창출'

중국 심양(沈陽)



그림 1. 중국 동북 3성

흔히 하는 말로 '청년백수 100만 시대'라는 답답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진 일보해야 할 나이에 취업을 못한 다수 청년들을 일컫는 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실업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2003년 외환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 문제로서, 특히 중국에 크게 나타났다. 그 결과 중국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급기야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이에 2009년 중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돈 약 7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창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확대라는 큰 목표

아래 직업훈련 계획 수립, 공공취업서비스 체계 마련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지역 중 현재 두드러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곳이 바로 동북 3성지역이라 하겠다. 동북 3성 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지역으로,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점일선(五點一線), 요녕연해지역개발, 장길도(長吉圖), 장춘·길림·도문 발전계획 등 국가급 발전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지역이라 하겠다.

그 중 심양(沈陽)시는 동북 요녕성에서 가장 큰 도시로 GDP 383.66억 위안인 교통과 산업 및 상업의 요충지이다. 1930년대 이후 중공업 중심을 기초를 다졌으며 현재 항공, 내륙 교통망 등을 중심으로 농업 및 제조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성장 중심축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듯 선양시는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선양(大沈陽)전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시 정부주도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 자세한 세부 전략으로 시 정부는 취업 및 재취업 공작회의(就業和再就業工作會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신발제조업, 가구업, 도자기 생산업 등 20여 개의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4개의 인력시장을 개척 혹은 신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창업지원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대출 허가 등 현실적 수단을 정책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선양시는 현재 혼남신구를 개발 중에 있다. 이전 혼남지구(渾南新區)는 1988년 개발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전자 및 정보기술제품, 통신장비, 오디오/비디오 기기, 자동차 등의 고급 제조업 등 700여 가지의 생산품을 생산해내며, 세계적으로 5,700여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이에 선양시는 혼남지구를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혼남 경제특구라는 명분으로 하여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이러한 기존 혼남지구는 선양시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책적 제도를 뒷받침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신구는 필요 건설인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선양시의 정책과 함께 하고 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정책인 경제 특구 개발과 함께 시책의 개발방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삼박자가



그림 2. 중국 심양지도



그림 3. 심양의 취업교육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하겠다.



그림 4. 혼남신구 토지이용



그림 5. 혼남신구청 내 개발 모형

이렇듯 중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극심해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다. 또한 심양시의 경우 동북 3성 경제성장 축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에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 적용 및 효과 부문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청년백수 100만 시대'라는 답답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진일보해야 할 나이에 취업을 못한 다수 청년들을 일컫는 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말 중 하나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정책 방향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산업에 기반한 고용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고용구조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존하게 되므로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성장업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역산업 및 기업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결과

- 최근 고용정책의 방향은 성장의 관점과 접목되어 있음. 즉 성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최근 발표된 2020 국가고용전략에서도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 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과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민선 5기 정부의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정책 비전에서도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방향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성장산업이면서 고용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업종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업종들임.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있고 고용증가율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던 반면 생산자 및 사회서비스업종들은 부가가치 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생산자 및 사회서비스업종은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기준을 살펴보면 부가가치 증가율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비교적 높아 고용정책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산업연관분석에서도 취업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또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구조가 미흡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크기가 서울지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구조, 근로여건, 구인·구직구조 등을 살펴보면 인천의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시간 근로 및 낮은 임금수준, 높은 비정규직 비중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인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며, 인천지역에 중소·영세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의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용정책에 성장의 관점이 융합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고용창출이 잘 이루어지면서도 부가가치 성장률이 높은 업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함. 이에 더하여 고용 창출이 경기순환에 비탄력적인 업종 또는 경기순환에 역행적인 업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연관이 깊은 측면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즉 제조업은 서비스산업의 지원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상호 내적 연관구조가 심화되어야 함. 이를 통해 각 업종의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고용창출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고용정책은 기업의 관점과 융합되어야 하는데, 먼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창업은 실질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 측면에서도 기존 기업보다 크고 청년 기업가를 양성함으로써 주니어 미사이에 기여가 가능해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성장과 기업의 관점에서의 고용정책 비전은 인천시 관내의 일자리 지원기관들과 수요기관,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로서 협력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인천지역과 같이 일자리 수급간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공유와 이해관계 조정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창업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교육사업,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인천종합창업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함. 현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창업 관련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천종합창업지원센터 설립이 이 기관들과의 업무 조정 및 상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The flowchart '사업성평가' (Business Viability Evaluation) illustrates the process of evaluating a business idea. It starts with '아이디어 구성' (Idea Structure), which leads to '아이템 가능성' (Item Possibility). From there, it moves to '기술 검토' (Technology Review) and then '사업성 검토' (Business Viability Review). A central box labeled '사업타당성' (Business Feasibility) receives input from the '사업성 검토' box. The process then branches into '창업준비' (Startup Preparation) and '사업계획수립' (Business Plan Formulation). A 'Feed Back' loop connects the '사업타당성' box back to the '아이템 가능성' box. The final outcome is '아이템' (Item), which is reached after a 'Yes' decision from the '사업타당성' box. A 'No' decision leads back to the '사업성 검토' box.

```

graph TD
    A[아이디어 구성] --> B[아이템 가능성]
    B --> C[기술 검토]
    C --> D[사업성 검토]
    D --> E[사업타당성]
    E --> F[창업준비]
    E --> G[사업계획수립]
    E --> H[아이템]
    E -- No --> D
    E -- Yes --> H
    F --> I[아이템]
    G --> I
    I --> J[Feed Back]
    J --> B
  
```



자료: 인천광역시 경제수도추진본부(2010), 가칭 '제물포 스마트타운' 기본계획(안).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 보고 지역 산업에 기반한 고용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용구조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존하게 되므로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성장업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3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광역시 고용현황

■ 전국 및 7대 광역시 청년층 노동력 규모

인천광역시 청년층 노동력 규모(15세 이상인구)는 555천명으로 7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264천명으로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7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각각 47.6%, 43.2%이며, 7대 광역시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률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표 1〉 전국 및 7대 광역시 청년층 노동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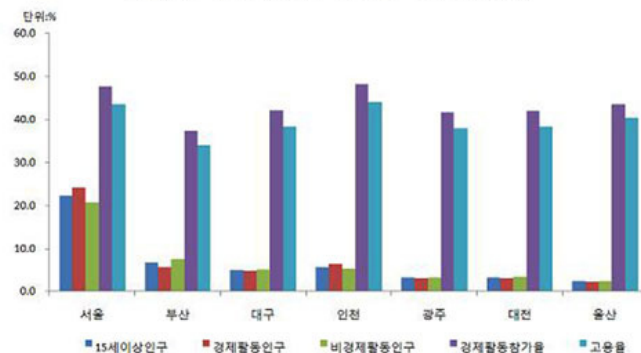
구분(2010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5세 이상 인구 (천명)	1/4	9,748	2,180	661	491	561	313	323
	2/4	9,719	2,172	656	489	559	313	322
	3/4	9,694	2,163	653	487	557	312	321
	4/4	9,661	2,152	648	484	555	312	320
	평균	9,706	2,167	655	488	558	313	322
경제활동 인구 (천명)	1/4	4,315	1,036	261	211	276	131	136
	2/4	4,292	1,041	253	208	270	135	132
	3/4	4,261	1,031	237	202	267	131	138
	4/4	4,147	1,021	228	201	264	124	134
	평균	4,254	1,032	245	206	269	130	135
비경제활동 인구 (천명)	1/4	5,433	1,144	400	280	285	182	187
	2/4	5,426	1,131	404	280	289	178	190
	3/4	5,433	1,132	415	284	290	181	183
	4/4	5,514	1,130	420	283	291	187	185
	평균	5,452	1,134	410	282	289	182	186
경제활동 참가율 (%)	1/4	44.3	47.5	39.5	43.0	49.1	41.8	42.0
	2/4	44.2	47.9	38.5	42.6	48.4	43.0	40.9
	3/4	44.0	47.7	36.4	41.6	47.9	41.9	43.1
	4/4	42.9	47.5	35.3	41.5	47.6	39.9	42.1
	평균	44	48	37	42	48	42	44
고용률 (%)	1/4	40.1	42.8	35.9	38.6	43.9	37.9	38.1
	2/4	40.8	44.1	35.2	38.6	45.3	38.0	37.7
	3/4	40.6	44.0	32.7	38.1	44.2	39.0	39.5
	4/4	39.9	43.7	32.4	37.9	43.2	37.4	38.5
	평균	40	44	34	38	44	38	40

자료: 통계청

주: 청년층(15~29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함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인구)×100

〈그림 1〉 7대 광역시 청년층 노동력 규모 비교(2010년 평균)



자료: 통계청(2010년 4/4분기)

주: 청년층은 15~29세 인구를 나타냄.

■ 전국 및 7대 광역시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 규모 추이

2010년 인천광역시 평균 취업자 수는 246.5천명으로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음.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945.3천명)이며 부산(777.8천명) 대구(186.5천명) 대전(173.8천명) 광주(119.3천명) 울산(91.5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실업자 수는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22.8천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7.3천명), 부산(22.0천명), 대구(19.3천명), 대전(11.8천명), 광주(11.3천명), 울산(7.0천명)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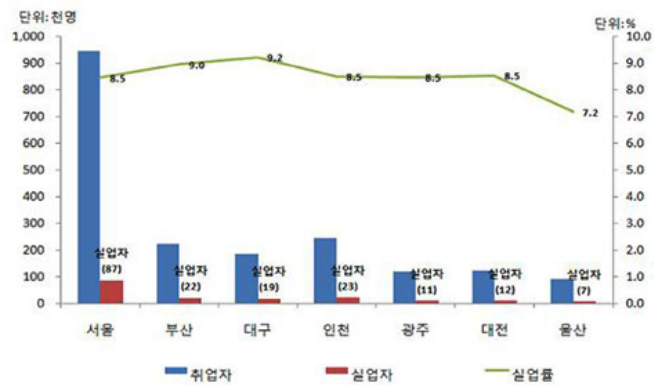
실업률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8.50%로 7대 광역시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9.23%), 부산(8.95%), 대전(8.53%), 인천(8.50%), 광주(8.48%), 서울(8.45%), 울산(7.18%)로 나타났다.

〈표 2〉 전국 및 7대 광역시 청년층 취업자 및 실업자(율) 규모 추이

구분(2010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취업자 (천명)	1/4분기	3,907	932	237	190	246	119	123
	2/4분기	3,961	957	231	188	253	119	122
	3/4분기	3,938	952	213	185	247	122	127
	4/4분기	3,850	940	210	183	240	117	123
	평균	3,914	945	223	187	247	119	124
	평균	3,914	945	223	187	247	119	124
실업자 (천명)	1/4분기	408	104	23	22	29	12	7
	2/4분기	332	84	22	20	17	16	7
	3/4분기	323	79	24	17	21	9	7
	4/4분기	297	82	19	18	24	8	7
	평균	340	87	22	19	23	11	7
	평균	340	87	22	19	23	11	7
실업률 (%)	1/4분기	9.5	10	8.9	10.2	10.7	9.3	7.1
	2/4분기	7.7	8.1	8.7	9.5	6.4	11.6	7.2
	3/4분기	7.6	7.7	10.1	8.5	7.7	7.0	7.4
	4/4분기	7.1	8.0	8.1	8.7	9.2	6.0	7
	평균	8.0	8.5	9.0	9.2	8.5	8.5	7.2
	평균	8.0	8.5	9.0	9.2	8.5	8.5	7.2

자료: 통계청 (2010년)

〈그림 2〉 7대 광역시 취업자,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인천광역시 청년층 노동력 규모(15세 이상인구)는 555천명으로 7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264천명으로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7대 광역시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7.6%, 43.2%이며, 7대 광역시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률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